

# 성가정 여배내

2023



2023 약속의 말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애가 5:21



기독교한국침례회  
중앙교회  
SUWON CENTRAL BAPTIST CHURCH

# 2023 설 가정예배

목 도 \_\_\_\_\_ 사회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찬 송 \_\_\_\_\_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 28장 / 새 28장) \_\_\_\_\_ 다함께

기 도 \_\_\_\_\_ 가족중

사랑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가족 모두가 계획한 일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는 가정을 세워가는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자녀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_\_\_\_\_ 예레미야애가 3장 18~25절 \_\_\_\_\_ 가족중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22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말 씬 \_\_\_\_\_ 소망의 빛 \_\_\_\_\_ 설교자

찬 송 \_\_\_\_\_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 488장 / 새 428장) \_\_\_\_\_ 다함께

주기도문 \_\_\_\_\_ 다함께

예배 후에는 가족과 다과를 나누며 덕담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설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까 🔍 를 검색해 보세요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예레미야의 말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으레 '소망의 새해'라며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해의 전망조차 낙관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각국이 불황의 늪에 빠질세라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힘든 시대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참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흡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을 거듭하다 마침내 B.C. 586년 바벨론에 패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조국 이스라엘과 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웠던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소망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소망의 빛'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자산은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은 인간을 죽이는 독약이고, 소망은 인간을 살리는 명약입니다.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 '소망의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 예레미야가 보았던 소망의 빛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어둠을 뚫고 비취오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막연히 바라보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고 그 사실을 꼭 붙들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심과 불신앙의 구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 역경의 시대에 부르는 소망의 노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어둠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소망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한해를 만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 28장 / 새찬 28장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 488장 / 새찬 428장

1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절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설 연휴 동안 고향(가족)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사랑** 설 명절 가족과 이웃에게 안부를 나눕니다.

**둘째. 마음** 설 선물을 부모님과 고향 교회에 나눕니다.

**셋째. 소망**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